

# 處容說話와 그 歌謠의 研究

金 承 璨\*

- |                  |           |
|------------------|-----------|
| I. 序 言           | IV. 處 容 歌 |
| II. 國東巡行과 山海精靈   | V. 結 言    |
| III. 東海龍所變과 輔佐王政 |           |

## I. 序 言

처용설화와 처용가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적 관점,<sup>1)</sup> 역사학적 관점,<sup>2)</sup> 불교적 관점,<sup>3)</sup> 연극사적 관점<sup>4)</sup> 등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분석·규명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연구방법론을 연대기적으로 취합하면 국문학 연구방법론

\* 釜山大 人文大 助教授

- 1) 孫晉泰; 處容郎傳說考(新生 3권 1호, 1930).
  - 金容九; 處容研究(忠南大卒業論文 1집, 1956).
  - 金東旭; 處容歌研究(東方學誌 5집, 1961).
  - 許暎順; 處容歌(古代社會의 巫覡思想과 그 歌謠의 研究, 1962).
  - 張壽根; 處容說話의 研究(국어교육 6, 1963).
  - 金映遠; 處容舞와 處容歌(佛教學報 2집, 1964).
  - 金烈圭; 處容傳承試攷(駱山語文 1집, 1966).
  - 玄容毅; 處容說話考(국어국문학 39·40 합번호, 1968).
  - 金圓卿; 處容歌의 變遷과 Shamanism에 관한 研究(서울敎大論文集 3집, 1970).
  - 李杜鉉; 處容歌舞(大東文化研究 別輯 1, 1972).
  - 徐大錫; 處容歌의 巫俗의 考察(韓國學論集 2집, 1975).
  - 金學成; 處容說話의 形成과 變異過程(韓國民俗學 10, 1977).
  - 尹榮王; 處容歌(新羅詩歌의 研究, 1980).
  - 朴魯淳; 處容歌(新羅歌謠의 研究, 1982).
  - 2) 李祐成;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 李龍範; 處容說話의 一考察(展懷學報 32호, 1969).
  - 3) 金思燁; 新羅人의 龍神思想과 處容歌(槿城 1권, 1964).
  - 金鐘雨; 佛敎의 龍觀念과 處容歌(睡蓮 7집, 1972).
  - 黃淇江; 處容歌의 美意識(국어국문학 61호, 1973).
  - 4) 安 那; 山台戲와 處容舞와 儺(朝鮮 21호, 1932).
  - 趙東一; 處容歌舞의 演劇史의 理解(演劇評論 15호, 1976).
- [기타] 金學主; 鍾馗의 演變과 處容(亞細亞研究 20, 1965).
- 鄭炳昱; 文學으로 본 處容歌(大東文化研究 別輯 1, 1972).

의 변천과정을 더듬을 수 있을 만큼 국학계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들 성과를 토대로 하고, 대부분의 실화가 그 발생·유포 당시의 사회 제반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밑에서 憲康王대에 형성된 처용설화와 그 가요를 당시대의 사회 제반상과 결부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 II. 國東巡幸과 山海精靈

현강왕대는 신라 하대에 해당되는 시대라 중앙진골귀족 사이에 정권 싸움 내지 왕위쟁탈 싸움이 수시로 일어났기<sup>5)</sup> 때문에 당대의 시대사조는 불안과 위기의식으로 말미암아 세기말적 풍조로 깊이 물들어 있어, 서울은 퇴폐적인 향락으로, 농촌은 불만으로 팽배하고 있었다. 崔柄憲님의 현강왕대를 중심한 신라하대의 사회 실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하겠다.

“憲康王代에는 중앙 귀족들의 도에 넘치는 향락생활에 대하여 그 이면에서는 몰락하고 있던 일반민중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있어서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불안은 왕실이나 귀족들에게도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실이나 귀족들의 醉生夢死하는 세기말적인 향락 생활도 실은 그들의 불안을 잊고 太平을 가장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현강왕은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의 발생이 자신의 不德의 소치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고, 유교정치의 구현을 위해 國學에 행차하여 박사 이하에게 經義를 강론케 하기도 하는가 하면, 佛力에 의한 왕권 회복과 호국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호국사찰인 皇龍寺에 행차하여 百高座를 베풀고 講經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민심 수렴을 위한 지방 순행을 했으며, 여기에서 국가 경제의 파탄 위기를 극복할 의도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각종 행사(주로 民俗祭儀)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왕의

5) 景文王 6년의 伊湏 允興·叔興·季興형제의 모반 복주, 동 8년의 伊湏 金鉉·金鉉 등의 모반 복주, 동 14년의 伊湏 近宗의 모반 복주, 憲康王 5년의 一吉湏 偕弘의 모반 복주, 定康王 2년의 伊湏 金堯의 모반 복주가 있었음.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 탐구당, 1978, p. 498.

開雲浦 행차도 곧 그와 같은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 蔚山郡 山川條의 開雲浦에 대한 설명에

“신라 현강왕이 鶴城에서 놀다가 海浦에 이르자 갑자기 운무가 자욱해서 길을 잃었는데 海神에게 빌었더니 운무가 걷혔다 해서 이렇게 이름지었다.”<sup>7)</sup>

라 되어 있는데, 여기 ‘鶴城’은 울산의 한 이름으로서 戒邊天神(호국천신)이 학을 타고 神頭山에 내려와서 사람의 壽祿을 주관하였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sup>8)</sup>

왕이 이 학성에서 ‘놀았다(遊)’라 함은 다름 아닌 龍神體로 설화되고 속신되던 처용암을 주된 신체로 한 별신굿인 해신제의(등해용신제의)를 개운포에서 베풀기에 앞서 학성 阿曲縣 남쪽의 大和寺塔<sup>9)</sup>에 가서 塔身供養의식을 베풀었거나, 아니면 每春秋에 香祝을 내렸던 나라 行祭所인 丐佛神祠나 守令 行祭所인 戒邊城隍神祠에 가서 제의를 베풀 것을 말함일 것이다. 그 이유는 ‘遊’란 곧 통치자가 京師를 떠나 지방 정치의 득실과 국민의 休戚을 살피며, 산천에 제사하던 정치적·종교적 활동인 巡幸(또는 巡守·巡行·巡撫·巡·幸·行 등으로 표기되기도 함)과 동계의 어사이며,<sup>10)</sup> 또 현금 별신굿을 거행할 때 堂山神(부락구의 주신)에게 별신굿을 거행하게 됨을 먼저 고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處容岩을 용신체로 추정하게 된 근거는 처용암이 있는 그곳 주변에는 현 지명이 龍岩·龍淵·龍岑 등으로 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고, 또 雞林類事에 ‘龍曰稱’이라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 憲康王 5년 3월조에

“왕은 나라 동쪽지방의 州郡에 행차하였다. 이때 所從來를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이 임금의 앞에 나타나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고, 또 衣巾

7) 新羅 憲康王遊鶴城 至海浦 忽雲霧晦冥 迷失道 禱于海神 開雲因名焉.

8) 世傳 戒邊天神 駕鶴降神頭山 主人壽祿 故或謂之鶴城(동국여지승람 울산군 누정조).

9) 자장법사가 중국 大和池의 神人(용)의 말에 따라 지은 것으로, 이 신인은 皇龍寺의 호법 용의 아비이며, 그가 “大和池塔을 세워 나의 복을 도와 주면 나도 역시 덕을 값으리라”란에서 세워진 것임(삼국유사 황룡사 구층탑조).

10) 金瑛河; 新羅時代巡守의 性格, 民族文化研究 14호, 1979, pp.210—11.

도 詭異하므로 사람들은 이르기를 山海精靈이라 하였다.<sup>11)</sup>

라는 기록이 있고, 또 慶尙道地理志 蔚山郡 靈異之跡조에

“신라때 한 사람이 그(처음암) 위에서 나왔는데 狀貌가 기괴하여 사람들이 處容翁이라 일렀다.”<sup>12)</sup>

라는 기록에 의해서이다. 姜信沆님도

“龍=處容=稱(tc‘jəŋ, 處陵切, 曾開, 三平蒸昌)인데, 고대국어의同一語를一字 또는 二字의 漢字로 寫한 예가 많으므로 고대국어에서 ‘龍’을 뜻하는 단어로서 ‘처용’ 또는 이와 유사한 一音節의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싶다.”<sup>13)</sup>

라 하였다.<sup>14)</sup>

이들 기술물을 종합하면, 處容은 山海精靈 가운데 있어서 해신에 해당되며, 해신은 용(여기에선 동해용)이니, 처용은 곧 용(=稱)이 된다. 그러기에 그때의 사람들은 그를 龍岩(處容岩)에서 나왔다고 하여 處容翁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龍岩에서의 出自說의 발생원인은 아마 그가 賣子習俗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용암에 팔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水中岩인 용암(처용암)에 매자됨으로 하여 용과의 유대를 지니게 된 동시에 龍子로서의 靈能을 가지게 된 것이라 보여진다.

水中岩은 조수에 따라 출몰하므로 달처럼 생변력의 상징이 된다. 처용암도 外煌江 하구에 있어 조수의 드나듦에 따라 출몰하였으므로 海神의 상징인 용신체로 신앙되었을 것이다.

현강왕이 3월에 행한 나라의 동쪽 여러 주군의 행차가 천재지변이나 기근·한발 등의 재앙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3월에 이

11) 憲康王五三卯年 巡行國東州郡 有不知所從來四人 詣駕前歌舞 形容可駭 衣巾詭異 時人謂之山海精靈.

12) 郡之南三十七里 有浦曰開雲 中有一岩曰處容岩 新羅時有人出其上 狀貌奇怪 時人謂之處容翁.

13) 姜信沆; 處容의 語義, 大東文化研究 別輯 1, 1972, p.8.

14) 「處容」의 語義에 대하여는 「龍」說(金容九), 「慈充」說(金東旭·金承稟), 「龍顏」說(金思擘) 「터알 바가지」說(金映遂) 등이 있음.

루어진 점을 염두에 두고, 그 행차를 三國史記의 다음 기록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逸聖尼師今5年冬10月 北巡 親祀太白山
- 味鄒尼師今3年春2月 東巡幸望海
- 基臨尼師今3年3月 至牛頭州 望祭太白山
- 惠恭王12年春正月 幸感恩寺望海
- 景文王4年春2月 王幸感恩寺望海

신라에 있어서 통삼 이전에는 태백산신과 동해 용신에 望祀를 거행하였고, 통삼 이후에는 감은사에서 동해용(文武王)에게 望祀하였다.<sup>15)</sup>

이 望祀를 비롯한 諸神祭儀에 대해 趙東一님은 신라 초기까지는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되었고, 그 후에는 민간의 행사로나 존속했던 것을 국가에 위기가 닥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그 곳의 성격은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sup>16)</sup>라 하였다. 金瑛河님도 위의 ‘望海’ 기사를 풍년을 기원하는 望祭로서 동해 용신 신앙에 따른 望海 기사로 취급하고 있다.<sup>17)</sup>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개운포에서의 망사(동해용신제의)는 農耕豫祝祭儀와 호국제의의 양면성을 띤 제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농경예축제의의 성격임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경사회에 있어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신격의 하나가 용신이라 속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에의 제의가 필요했고, 또 제의의 개최시기가 농경예축제의가 베풀어지는 춘제인 3월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호국제의의 성격임은 문무왕이 생전엔 왜병 퇴치의 호국용이 되길 원했고, 돌아가신 뒤엔 그 소원대로 大王岩에서 동해의 호국대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兵退病愈·旱雨雨晴·風定波平하는 萬波息笛가 바로 龍身임으로 그것의 증좌가 된다고 하겠다.

또 삼국사기의 “所從來를 알 수 없는 네 사람을 그때의 사람들이 山海

15) 拙稿: 新羅의 諸祀試論, 丁仲煥博士遷曆紀念論文集, 1974, pp.508-9.

16) 趙東一; 處容歌舞의 演劇史의 理解, 演劇評論 15, 1976년겨울호, pp.11-15 참조.

17) 金瑛河(1979); p.216.

精靈이라 일렀다.”라는 기록도 개운포에서의 제의가 호국제의였음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옛 山海精靈이란 南山神(鮑石亭에 나타난 신)·北岳神(金剛嶺에 나타난 신)·地伯級干(同禮殿에 나타난 신)·東海龍神(開雲浦에 나타난 신)을 두고 말함인데, 이들이 순행하는 왕의 앞에 나타나 나라가 환락에 젖으면 장차 망할 것임을 미리 깨우쳐 주기 위해 춤을 추어 보였는데도 왕이나 백성이 이 경계를 모르고 耽樂에 깊이 빠져 든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조에 기록된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개운포에서 제의를 치른 뒤 왕정을 보좌하기 위해 서울로 따라 온 처용이 매양 달밤에 가무하던 金城의 남쪽 거리를 月明巷이라 하였는데,<sup>18)</sup> 이 월명항이, 곧 法相宗을 신봉하면서 文豆婁秘法을 구사하여 二日並現의 재앙을 물리켰던 월명사<sup>19)</sup>가 피리를 불어 달을 멧게 하여 이름을 얻게 된, 호국사찰이며 監令(衿荷臣)이 大阿湊에서 角干까지의 진골 가운데에서 임명되고 신라 各寺成典의 횡적 중심 사찰이요 종적 감독 寺格인 四天王寺<sup>20)</sup>의 부근에 있는 月明里와 같은 지명이라면,<sup>21)</sup> 사천왕사와 그 부근 일대에는 아마 호국제의에 임무를 띤 인물들이 상주하던 곳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따라서, 처용은 신라의 하대에 등장된, 호국제의의 임무를 띤 사천왕사 부근의 월명항에 살면서 가무로써 왕정을 보좌하였던, 所從來가 분명하지 않은(출신성분을 알 수 없는), 개운포 지방의 용신제의를 주관했던 집단에서 나온 가무에 능한 男巫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이상이므로써 삼국사기 현강왕대의 제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하여 처용설화를 분석해 본 바, 현강왕의 개운포 행차는 현금 동해안 지방에 유포된 별신굿처럼 몇 년만에 한번씩 3월에 베풀어진 농경예축제의와 호국제의의 양면성을 띤 동해용신제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의 제의장소는 龍神體로 구비되고 속신되던 처용암이 있는 外煌江 하구 부근에 있었던

18) 月明巷: 在金城南…處客每月夜歌舞於市…其歌舞處 後人名爲月明巷(東京雜記 古蹟條).

19) 拙稿: 鄉歌作家的思想攷, 荷西金鍾雨博士停年退任紀念論叢, 1980, p.3.

20) 李載昌: 三國史記佛敎鈔存·附註, 佛敎學報 2輯, 1964, p.317.

21) 梁柱東: 古歌研究, 博文出版社, 1957, p.394.

용신 神祠이었을 것이며, 가무로써 왕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로 따라 온 처용은 개운포 지방의 동해용신제의를 주관했던 집단에서 나온 가무에 능한 남무이되, 그 출신성분이 뚜렷하지 않고 매자습속으로 처용암과 결부된 인물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 Ⅲ. 東海龍 所變과 輔佐王政

그러면, 지금부터 三國遺事 處容郎望海寺條에 실려 있는 처용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처용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고구하고자 한다.

먼저 처용설화를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a) 第四十九憲康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 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 風雨調於四時.

(b) 於是大王遊開雲浦 王將還駕 晝歇於汀邊 忽雲霧冥曠 迷失道路 恠問 左右 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 爲龍徇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c) 東海龍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d)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美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 國人門帖處容之形 以辟邪進慶.

(e) 王既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 置寺 曰望海寺 亦名新房寺 乃爲龍而置也

위의 처용설화 가운데 (a)는 처용설화의 배경 설명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인데, 이는 같은 책 又四節遊宅條의 “성안에는 초가가 하나도 없었고, 가옥의 추녀와 담들이 이어져 있었으며, 노래와 풍류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여 밤낮 끊이지 않았다.”<sup>22)</sup>라는 기술물과 일치하며, 삼국사기 헌강왕 6년 9월 9일조에 왕과 侍中 敏恭이 月上樓에서 주고 받은 대화 가운데의 시대상황의 설명과도 대응한다.<sup>23)</sup> 崔柄憲님도 당시의

22) 第四十九憲康大王代 城中無一草屋 接角連牆 歌吹滿路 晝夜不絕.

23) 王與在右登月上樓四望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顧謂侍中敏恭曰 孤聞今之民間覆屋以瓦 不以茅 炊飯以炭 不以薪 有是耶 敏恭對曰 臣亦嘗聞之如此 因奏曰 上即位以來 陰陽和 風雨順 歲有年 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聖德之所致也 王欣然曰 此卿等輔佐之力也 朕何德焉.

경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 수도 경주는 신라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번영하여 東市·西市·南市의 세 시장이 있어 전국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唐을 비롯한 외국의 사치품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왕궁·관청·사찰 등을 비롯하여 귀족들의 대저택이 즐비하였다. 귀족들의 저택 가운데는 이른바 「35 金入宅」이라고 하여 호화저택들의 수요가 35개에 이르렀고, 또한 「四節遊宅」이라고 하여 중앙귀족들에게는 춘·하·추·동 4계절을 따라 유희하는 별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귀족들은 이 속에서 노래소리가 길에 가득하고 밥낮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할 만치 환락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수도 경주는 전기의 전설한 기풍은 사라지고 퇴폐적인 풍조만이 만연하는 향락의 중심지로 변한 것이었다.”<sup>24)</sup>

이와같이 경주의 귀족들은 환락에 깊이 빠져 말세적 세태를 자아냈고, 농촌은 피폐해 가고 있었다. 따라서 (a)는 신라 하대의 落照의 美를 그렸나 할 수 있겠다. 그런데 趙東一님은 이 (a)의 기술에 대하여

“현강왕 때가 태평성대임을 강조한 기사는 시라벌에 거주하는 신라의 귀족들은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그러한 태평성대를 재현해 보려는 희망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곳에서 사용하는 呪術의 기본적인 방법이다.”<sup>25)</sup>

라 하여, 현강왕이 처용굿을 통하여 태평성대를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본 견해는 당시대상과 주술 원리를 결부하여 추정하면 다소의 타당성을 지니겠으나, 정사인 삼국사기 현강왕 6년 9월조에도 (a)와 대응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다시 고려할 점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 (b)에 있어서 왕의 개운포에서의 놀이는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곧 처용암 근처(外壇江 하구)에서 처용암을 용신체로 한 望祀(동해용신제의)를 위한 행차였던 것이다.

그리고, 왕이 장차 돌아오려 할새 낮에 물가에서 쉬는데 홀연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이는 異變을 당하게 되었다. 이 이변을 왕의 향연에

24) 국사편찬위원회(1978); p. 495.

25) 趙東一(1976); p. 10.

比한 용신에의 致祭가 없었기에 용신이 치제를 받기 위하여 ‘忽雲霧冥曠’하는 凶驗의 이변으로 해석<sup>26)</sup>하거나, 동해용신은 국왕의 행차까지 운무로써 저지한 靈能이 있는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처용의 출신을 미화(신성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해석<sup>27)</sup>할 것이 아니라, 동해용이 호국의 의도 밑에서 장차 있을 나라의 昏亂——寇賊의 내침·신하의 모반<sup>28)</sup>을 왕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면 어떠할까?

朴魯亭님도 “이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엿보인다” 하고서 원래 용이 운무와 풍우 등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여 忽雲霧冥曠의 현상을 이에 比擬했을 뿐 사실은 용(동해용으로 상징화된 인물)이 기상의 변화를 퇴치한 것인데 望海寺 창건설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 이 부분 기록을 후대에 첨가했을 것이라 추단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필자는 忽雲霧冥曠의 이변을 동해용이 일으켰되, 이 용을 같은 조에 등장하는 남산신·북악신·지신 등과 같이 나라 망함의 경계를 주기 위해 등장된 해신(호국용)으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동해용은 자기의 植福을 위해 불사를 창건해 달라고 갑자기 雲霧冥曠의 이변을 일으킨 그런 자기 본위적 행동을 감행한 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호국의 임무를 띠고 나타난 용이라 본다. 그러하기에 그의 일곱 아들 가운데 가무에 능한 처용을 왕에게 팔려 보내어 왕정을 보좌케 하지 않았는가!

삼국유사 처용왕 망해사조에 처용에 대한 설화가 “① 雲霧의 이변→② 불사 창건의 칙령→③ 동해용의 현무주악→④ 처용의 隨駕入京→⑤ 처용의 역신 퇴치와 門神으로서의 정착→⑥ 靈鷲山 東麓의 망해사 창건”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 ②와 ⑥을 합쳐 기술하되, ②의 “佛寺近境” 밑에 험주로서 ⑥을 기술해 두거나, 아니면 한 문장으로 아울러 기술해 두어도 될 터인데, ②와 ⑥을 별개로 하여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기

26) 玄容殿: 處容說話考, 국어국문학 39·40 합번호, 1968, p.15.

27) 徐大錫: 處容歌의 巫俗的 考察, 韓國學論集 2, 1975, p.57.

28) 안개란 邪氣로서 나라의 昏亂—寇賊의 징조, 奸邪한 臣下의 모반 징조를 나타냄. (高麗史 卷 55 五行 3의 仁宗 11년 12월조, 毅宗 18년 11월조, 明宗 9년 9월조의 太史奏請 참조).

29) 朴魯亭: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pp.320—21.

술한 것은 왕이 환궁한 뒤에 동해용의 운무를 통한 豫徵(장차 나라의昏亂이 있으리라는 예징)이 정확히 맞혀진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이 토평된 뒤에 그 예징을 보여 주어, 사건을 큰 혼란없이 토평케 해 준 동해용의 공덕에 대한 보답으로 처용암이 있는 外煌江의 발원지의 산이며 호법호국의 法華靈場인 영취산에 望祀의 사찰인 望海寺를 건립하게 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는 삼국사기 헌강왕 5년 3월조에 국동지방에 왕의 순행이 있었고, 그 뒤 6월조에 一吉漁 信弘의 모반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 이런 일들르 인하여 삼국유사에는 시간차를 둔 순차적 기술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동해용을 위해 지은 망해사가 있는 靈鷲山(336m)은 耽良州 阿曲縣에 있는 文殊山(599m)의 동쪽에 위치한 명산으로 보살이 사는 第10法雲地(dharma—megha—bhūmi)이다. 이 산에 있는 靈鷲寺는 문무왕대에 원효의 스승 朗智·元聖王대에 國師 緣會가 법화경을 읽고 普賢觀行을 닦으며 신통력을 가지고 생활했던 法華靈場으로서 山主人 辯才天女の 陰助가 많았던 사찰이다.<sup>30)</sup>

변재천녀(sarasvati)는 詠歌·음악을 장악하고 無碍의 변재르써 불법을 유포하여 壽命增益·怨敵退散·財寶滿足의 이익을 주는 여신이다. 따라서 처용 가무의 효능·변재천녀의 직능·만파식저의 呪能은 음악과 원적퇴산이라는 동계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더구나 영취산의 동쪽에는 자장법사가 중국 大和池에서 만난 神人(龍)의 植福을 위하여 설치한 大和寺塔과 龍淵이 있었다.<sup>31)</sup>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면, 망해사가 창건된 영취산과 그 주위는 鎮護國家三經(金光明經·仁王經·法華經)의 하나인 법화경에 소거하여 諸佛諸天의 冥護가 보증된 법화영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望祀를 위한 사찰인 망해사<sup>32)</sup>를 세우고 望海臺를 쌓아 생민력과 호법호국력을 지

30) 三國遺事의 郎智乘雲普賢樹條와 緣會逃名文殊帖條 참조.

31) 三國遺事의 皇龍寺九層塔條와 朗智乘雲普賢樹條 및 前後所將舍利條 참조. 특히 前後所將舍利條를 보면, 자장법사가 貞觀 17년 제포에 가지고 온 佛舍利 100粒을 大和塔·皇龍寺九層塔·通度寺戒壇에 나누어 봉안했다 함은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닌 동해용을 위해 祭儀로 베풀어 줌으로써 전제왕권의 회복·농업 생산의 증대·내우외환의 평정 등을 도모하면서 王祚永安을 보증받으려 하였던 것이리라.

(c)에 있어서 동해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의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했다는 것은 동해용신제의가 끝난 뒤 성장과 증식 및 호국을 상징하는 용신으로서 假裝來訪者役을 담당한 사제자가 일곱의 男巫<sup>32)</sup>를 거느리고 왕의 앞에 나타나 “讚德獻舞奏樂”했다는 것이다. 이때 “讚德”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侍中 敏恭의 上奏인

“상께서 즉위한 이래로 음악이 조화되고, 풍우가 순조로와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의식이 풍족하고 변경은 안정되었으므로 시정에서는 기뻐하게 되었으니 이는 성덕의 소치입니다”

라 한 것과 같은 내용의 성덕 찬양일 것이며, “獻舞奏樂”은 동해 용신을 제사지내는 神樂의 거리<sup>34)</sup>이거나, 왕의 幸行에 따르는 잡귀를 구축하기 위해 배푼 賽神행사로서의 가무<sup>35)</sup> 및 운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 3의 인물(동해용으로 상징된 인물)들에 의한 일종의 의식적 행사<sup>36)</sup>이기보다는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의 후반에 있는 왕의 행차에 나타난 포석정의 남산신(祥審)·金剛嶺의 북악신(玉刀鈴)·同禮殿의 지신(地伯級干) 등의 獻舞와 같은 망국 경계의 성격을 지닌 舞樂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그 이유는 첫째, 삼국사기에 처용을 중심한 위의 세 신격을 합쳐 “山海精靈”이라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삼국유사에 등장되는 신격과 일치된다면 다들 왕의 앞에 나아가 “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를 하였고, 둘째,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는 條名이 “處容郎 望海寺”인 만큼 처용에 관한 얘기(출현과정·활동상황·문신 정착과정 등)와 망해사 창건연기설화가

32) 울주군 靑良面 영취산에 있는 望海寺址에서 보면, 辰方위치로 처용암이 있는 외황강하구와 細竹里 및 處容里가 널리 보임. 현 主持 太古宗 徐鎮洛(불명: 昌潤, 50歲)씨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서 용왕제의 기도를 드리면 처용암이 3자 솟고, 드리지 않을 때는 3자나 내려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함.

33) 望祀는 男巫가 掌理하기 때문에 女巫는 등장할 수 없음.

34)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p.127.

35) 許瑛順; 古代社會의 巫覡思想과 그 歌謠의 研究, 1962, pp.182--83.

36) 朴魯燾(1982); p.321.

주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지만 “又”라는 어사로 시작된 후반의 諸神 舞樂을 고려하면 舞樂起源에 관한 설화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舞樂 발생이 國亡 警戒에 연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용이 外煌江 하구의 처용암을 통해 등장하게 된 것은 水中岩이 가지고 있는 生繁力에 기인한 것으로 처용의 탄생시 賣子習俗에 의하여 그가 부모로부터 처용암에 매자됨으로서 처용암이라는 龍神體와 유대를 맺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처용설화는 사실성과 신성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라 하겠는데, 한편 金烈圭님이 논급한 것처럼 개운포의 수중암에서 龍神 내지는 신격화된 漂着異客의 제전이 배풀어졌고, 그때 처용도 용신의 現身 내지는 異客의 표착을 계의적으로 연출해 보인 男巫이던 인물이 뒷날 處容으로 命名되어 처용 그 자체가 된 것<sup>37)</sup>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용설화의 핵심 부분인 (d)에 있어서 “處容의 王政輔佐”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李佑成(1969); 처용의 본고장(울산)의 사정에 관한 정부의 자문 임무.
- 李龍範(1969); 위기에 처한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理財家로서의 보좌.
- 金烈圭(1972); 龍子로서 示顯하였던 樂舞.<sup>38)</sup>
- 黃湏江(1973); 歌舞로서 佛性敎化.
- 徐大錫(1975); 巫로서 할 수 있는 직능.
- 趙東一(1976); 역신을 물리치는 곳으로 보좌.
- 尹榮玉(1980); 醫巫로서 보좌.
- 朴魯堉(1982); 기상 변화를 다스리는 직책.

필자의 견해로서는 처용의 왕정보좌는 어디까지나 가무로써의 보좌라 본다.

고대 통치라는 德治·善政을 위한 방편으로써 가악이 필요하다고 思惟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악은 天地鬼神을 감동케 하는 呪能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바른 가악은 天地와 民心의 調和뿐 아니라, 사회질서의 확립

37)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1, pp.262—63.

38) 金烈圭; 鄉歌의 文學的 研究—班,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1972, p.34.

에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다.<sup>39)</sup> 憲康王도 신라 하대의 기울어지는 전제 왕권을 회복하고 사회질서와 위계질서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바른 가악의 필요를 느끼고 호국용과 유대물 맺고 가무에 능통했던 男巫 처용을 級干이라는 벼슬을 내려주면서까지 呪能있는 가무로써 왕정을 보좌케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龍 즉 처용의 가무는 萬波息笛과 같은 呪能을 신라사회에 보증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처용이 가무를 행한 시기를 東京雜記에서는 “每月夜歌舞於市”라 하여 달밤에 행하였음을 기술하고 있고, 처용가에서도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라 하여 달밤에 행하였음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아, 처용이 달밤을 통해 가무한 것은 달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상징성인 주기적 淨化의 체계 곧 生宇宙의 리듬(biocosmic rhythms)<sup>40)</sup>을 그의 가무에 바르게 부여받아 呪能을 십분 발휘하고자 한 데서 나온 행위였을 것이다.

그리고, 처용이 그의 처가 환락을 상징하는 疫神과 犯接하고 있음을 보고서 “唱歌作舞而退”한 것은 가무의 呪能으로써 환락에 자심한 아내의 정신을 개오시켜 부부의 질서를 도로 찾고자 함에서 나온 행위라 볼 수 있다. 사회 제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正樂的인 가무의 呪能을 익히 알고 있었던 처용으로서는 “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라 하여 은유하고도 체념적인 어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나라의 멸망을 최측하는 역신이 그의 가무의 呪能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不怒하고 歌舞而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처용가는 내용에 있어 탄원적·祈求의이거나 위압적·명령적이지도 아니한데도 결과적으로 역신을 물러가게 하였으니 呪詞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역신은 처용 생존시에는 물러갔으나 그 뒤에는 여전 발호하였기에 신라는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처용의 門神연기실화는 후래적인 것임).

39) 拙著: 韓國上古文學研究, 第一文化社, 1978, pp.134—39 참조.

40) M.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 Press, 1974, p. 52.

#### IV. 處容歌

처용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처용설화를 고구한 결과에 의해 추출된 처용과 처용가에 대한 제견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처용에 대한 여러 견해

梁柱東(1942); 그 出現할 때가 日蝕直後임으로 日蝕神「羅睺」로 인정되었는데 「羅睺」는 한편 忍辱菩薩의 하나인 「羅睺羅」와 관련된.

金東旭(1961); 南海岸의 護國龍으로 인식되어 온 龍神祭의 司祭者(東海龍神의 아들인 巫祖).

許映順(1962); 開雲浦의 龍神祭儀에서 龍神의 假面服飾으로 분장한 司祭者 가운데 한 사람.

張壽根(1963); 僻邪假面(處容假面)을 쓴 司祭者 즉 現人僻邪神.

金映遂(1964); 子邪大神 즉 土地神의 眷屬

金烈圭(1966); 龍神의 子를 再演한 男巫. 그는 接神한 巫婦와 맺어져 당대 제 1급의 國巫노릇을 하게 됨.

李佑成(1969); 蔚山지방 反中央의 豪族의 아들로서 質子.

李龍範(1969); 理財術을 지녔던 이슬람商人의 1員.

金宅圭(1969); 東海龍神으로扮한 主巫에 종속한 助巫로서 歌舞에 뛰어난 倡夫巫.<sup>41)</sup>

黃浪江(1973); 護法の 龍子.

徐大錫(1975); 東海龍神을 몸주(主神)로 한 降神巫.

趙東一(1976); 처용곳에서 여름을 상징하는 神格, 겨울을 상징하는 동시에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재앙을 상징하는 疫神을 물리치는 神格.

金學成(1977); 說話形成 당대(천강왕 이전)는 실존인물이되, 强者(權力上層)에게 침해받는 弱者(民衆)의 상징적 人物.

朴魯瑄(1982); 주술의 능력과 歌舞의 의식을 통해 기상의 변괴를 물리칠 수 있는 屍.

##### (2) 처용가에 대한 여러 견해

金東旭(1961); 本來의 巫歌 위에 덧붙인 插入歌謠.

金映遂(1964); 下半身不遂라는 惡疾風病에 걸린 터알이病 환자가 辟邪大神인 처용에게 자신의 病鬼邪鬼의 침해를 입게 된 得病因緣을 진술하여 그로 하

41) 金宅圭; 韓國人의 農神信仰에 對하여, 東洋文化 10輯, 1969, pp.15-6.

- 여금 자신에게 침범한 疫鬼를 驅逐해 달라는 發願文 즉 祝願文.  
 玄容駿(1968); 儀禮에 機能하던 神話(巫歌)中の 일부로서 呪의 情調인 唱詞部  
 分의 一部(驅疫神 處容의 疫神을 向한 말인 동시에 呪의 辭說).  
 金鍾雨(1972); 處容이라는 法行龍이 唱한 일종의 眞言이요 佛教의인 呪文(多  
 羅尼)인 것.  
 金烈圭(1972); 呪術起源의 再演인 叙事部分과 작하여져서 疫神退治呪術의 핵  
 을 이루게 된 呪詞.  
 徐大錫(1975); 處容神의 由來를 설명한 叙事巫歌에 삽입된 呪術巫歌.  
 金學成(1977); 强者에 의한 아내의 정조유린이라는 悲哀를 滑稽의으로 표현한  
 民謠格 鄉歌.  
 朴魯煥(1982); 울산지방에서 入京한 한 男巫가 遊樂과 퇴폐의 풍조 속에 젖어  
 있던 도시적 환경에서 姦夫에게 아내를 빼앗기자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포기과 체념을 초월의 미덕으로 승화시켜 언어(말)로 나타낸 것.

이와 같이 처용과 처용가의 성격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구구하게 도출되어 왔다.

필자는 설화란 그 발생·유포 당시의 사회 제반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이라는 전제 밑에서 처용설화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산문 문맥을 중시  
 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처용이란 인물은 개운포 지방의 처용암을  
 용신체로 하여 동해용신제의를 주관하던 집단에서 나온 가무에 능한 男巫  
 이되, 출생때 생년력이 보증된 용암(처용암)에 賣子됨으로서 용과의 유대  
 를 가지고 그 靈能을 부여받은 인물이고, 그의 隨駕入京하여 王政轉佐한  
 문맥을 고려하면, 그는 呪能에 있는 가무로써 신라 하대의 王祚永安을 도  
 모하는데 진력을 다한 호국적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의해 가창된 처용가도 내용이나 가사의 어법에 呪詞的 요  
 소가 들어 있지 않지단 疫神을 무릎 꿇인 呪能은 그가 龍子로서의 靈能과  
 男巫로서의 직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용가 제 1.2구의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용이 달을 통해 그의 가무에다가 종교적 상징성인 주기적 淨化의  
 체계 곧 생우주적 리듬을 부여받기 위한 행위를 하다가 집에 들어왔음을  
 노래하고 있다. 보통 어두운 밤에 巫事가 잘 배풀어지는데<sup>42)</sup> 반하여 이

노래에서 달밤이 등장된 까닭은 위와 같은 목적 이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을 듯하다.

제 3.4.5.6 구의 “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二脞隱吾下於叱古二脞隱誰支下焉古”는 提喩法과 質問法을 사용하여 교접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내 아내를 범접하는 인물의 정체가 누구냐”하는 물음으로 끝나 갈등과 대결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구절이다.

다리란 발과 더불어 色情表象의 여러 형식 가운데 가장 잘 사용되며, 육체 가운데 성애를 느끼게 하는 매혹적인 부분의 하나로 곧잘 등장된다. 따라서 이 네 구는 처용가를 淫詞의 내용을 지닌 노래로 보게끔 하되 呪詞이지 않게 만드는 구절이다. 그러나 처용이 대결의식을 가지고 제 6 구에 “二脞隱誰支下焉古”라 하여 자기 아내를 범접하는 이에게 그 정체를 들어내어라 하는 뜻<sup>43)</sup>을 지닌 질문법을 씌으로써 疫神이 뒤에 자기의 정체를 들어내어 사죄하게 되었으니 呪能이 발휘된 구절이라 하겠다.

역신이란 처용을 僻邪進慶하는 門神의 연기실화와 결부지을 때 질병신이 된다. 현강왕대의 사회 제반상과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조의 諸神出舞의 기재 의도가 娛遊에 있음이 아니고 國亡 경계를 보이기 위한 것에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는 역신을 그 시대의 타락과 방탕 풍조에 빠져 있던 반도덕적 폐류인<sup>44)</sup>로나 타락된 화랑,<sup>45)</sup> 아니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재앙<sup>46)</sup>으로나 淫樂<sup>47)</sup>의 상징으로 해석함이 온당할 듯하다. 곧 역신이란 나라의 멸망을 催促한 환락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제 7, 8 구의 “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라 한 절구는 처용의 出自가 龍子이어서, 세속적 소유욕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에, 선뜻 아내를 역신에게 내어줄 수 있는 襟度정신의 자세를 가지고 노래했다고 할

42) 巫事 가운데 별신굿제열은 달밤에 잘 베풀어지지만 치병을 위한 개인적 巫事는 달밤이 아니더라도 잘 베풀어짐(니오라체 著·李弘植譯; 시베리아諸民族의 原始宗教, 新丘文化社, 1976, p.131 참조).

43) 徐大錫(1975); p.65.

44) 朴魯塚(1982); p.326.

45) 李佑成(1969); p.124.

46) 趙東一(1976); p.14.

47) 金善琪; 꽃얼굴 노래, 現代文學 155호, 1967, p.112.

수도 있겠으나, 기실은 처용이 앞에서의 대결의식을 포기하고 환락에 병든 아내와 역신을 耽樂에 滋甚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각에 의한 새로운 출발·발전적 변신을 가져오게끔 하기 위한 저의 밑에서 노래 부르며 作舞而退한 것은 아닐까? 물론 이때의 처용가무에는 생우주적 리듬을 부여받아 역신쯤 퇴치할 수 있는 呪能을 충분히 구유하고 있었음엔 틀림없다. 그러기에 결과는 역신의 改悟·自退를 가져오게 했던 것으로, 결코 異客款待의 형태<sup>48)</sup> 이거나, 巫覡社會에서의 女權優位에서 나온 행동<sup>49)</sup> 이거나, 布施太子의 捨施와 같은 정신<sup>50)</sup>에서 나온 행위와 노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 밑에 불러진 처용가의 존재가 뒷날의 문신연기 설화와 결부되고, 나아가 궁중의 나례의식에 채용됨으로써 처용의 가면과 가무는 역신 (이때는 질병신)을 驅逐하고 僻邪進慶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 V. 結 言

이상으로서, 처용설화와 그 가요를 현강왕대의 사회 제반상과 결부시켜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현강왕의 “遊開雲浦”에 있어 “遊”는 外煌江 하구의 용신 神祠에서 처용암을 神體로 하고 3월에 베풀어진 동해용신제의 (농경예축제의와 호국제와의 성격울 띤 望祀)에 참석함을 말합이고, 이때 왕을 따라 서울로 온 처용은 개운포 지방에 있었던 동해용신제의 집단에서 나온, 가무에 능한 男巫이되, 출생 때 생년력이 보증된 용암(처용암)에 賣子됨으로서 용과의 유대를 가지고 그 靈能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呪能있는 가무로 왕정을 보좌할 수 있게 되었다.

48) 金東旭(1961); p. 132.

49) 金烈圭(1971); pp. 256—58.

50) 黃浪江; 鄉歌研究試論, 古典文學研究 2집, 1974, p. 141.

둘째, 동해용의 雲霧異變은 장차 있을 一吉演 信弘의 도반을 동해용이 豫徵한 것이며, 그 예징이 적중하자 그 공덕에 대한 보상으로 護法護國의 佛力이 보증된 法華靈場인 靈鷲山에 동해용을 위한 望祀(동해용을 위한 제의)의 사찰인 望海寺를 건립해 주었던 것이다.

세째, 처용의 왕정 보좌는 가무로써의 보좌를 말한다. 고대 통치자가 가진 歌樂觀과 민간 속신적 가악관을 아울러 가졌던 현강왕은 呪能(呪能)이 있는 가악으로써 기울어진 당시 사회를 바로잡아 王祚永安을 도모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이라 하겠다.

네째, 처용이 가무를 행한 때가 어두운 밤이 아니고, 달밤임을 보아, 그는 달이 가지고 있는 생우주적 리듬을 그의 가무에 바르게 부여받아 呪能을 심분 발휘하려 했던 것이라.

다섯째, 처용설화에 등장된 疫神은 설화 발생 당시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환락의 상징이었으나, 뒷날 처용의 문신화와 나래의식에 연계됨으로써 熱病神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처용가가 처용에 의해 처음 불러질 때는 역신(환락에 침잠된 정신)을 개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뒷날 궁중의 나래의식에 채용됨으로써 악학체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장형화하게 되었고, 그 기능도 열병신을 구축하고 僻邪進變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